

[오피니언]

월/요/광/장

강희숙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조기 착공 시도를 놓고 우리는 지금 어지러울 정도의 논란에 휘어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쪽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야말로 자연생태의 복원이며 국토균형발전을 꾀하는 미래의 선택이란 설령으로 대운하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불확실한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 및 문화재 파괴를 자초하는 비양심적 행위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어린 백성들로서는 어지러움에 이어 멀미까지 날 정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같은 혼란 속에서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의 사찰이 대학가 여기자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대운하 반대의 논리와 근거가 무의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정치적 성향의 인물들인가를 분석해 냅으로써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으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5·6공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절

대로 적절한 처사는 아니었다. 우리 정치와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어떤 일을 정직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일로써 푸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묘하게, 아니면 억지로 애구

대운하는 대운하로 풀자

를 맞춘 정치논리로 풀려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안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한 이성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심부름 판단으로 문제를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에 속한다. 요컨대, 대운하 문제는 교묘한 정치논리가 아니라 정확히 운하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 대체 어떤가를 찾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는 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몰입식 영어 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적 인수위가 기존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라며 내놓았던 정책이 허무맹랑한 것 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한 대통령의 고백 앞에 ‘내 그럴 줄 알았다’며 고소해 할 백성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늦게나마 그러한 밭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는 박수를 보내야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운하 건설 역시 마땅히 파기하는 것 이 옳을진대, 대통령은 만에 하나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요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야당 역시 집권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어깃장이 아니라, 대운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가장 객관적 이면서도 과학적인 겸손에 우선순위를 두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 결과, 대운하 건설이 말 그대로 민족중흥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에 이를 수밖에 없다면, 씩씩한 멧돼지처럼 혹은 튼튼한 불도저처럼 대운하 건설의 첫 삽을 야당이 앞장서서 들어야 할지도 모를 일인 것이다.

어느 쪽이 되었던 틀림없이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일 것이라는 의심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정한 근거와 명분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뚜렷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철저하게 따져보려는 데에서부터 정치는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한 분석이 없이 밀실행정으로, 또는 상대방의 발목 잡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국론의 분열을 야기할 뿐이다.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선심 공약 혹은 어깃장이 아니라, 오로지 나리와 백성을 위한 물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정치가 될 수 있을 때, 우리 정치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조선대 국문과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 고

전승현



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 국가 기간교통망은 주요 도시, 비행장,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상호 연결으로써 인적·물적 수송효율을 극대화 한다. 이는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세계 중에는 호남고속철도는 호남권의 중추공항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지난 1987년 노태우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시작된 1990년 대당성 조사를 시작했지만 IMF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해 8월에서

체공항으로서의 철도 전환 수송 수요 증가와 목표 등 서남권 배후도시 세력권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 이동성 및 접근성이 대폭 확충돼 해양과 내륙, 산업과 자연문화가 살아 숨 쉬는 다기능 래저·관광 및 휴양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돼 중국 등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호남고속철도는 ‘선 공급, 후 수요창출’로 추진돼야 한다. 당초 출발부터 경제성 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권의 수송능력 증대와 물류비용 감소를 통한 신 성장동력 제공 등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김철

몇 년전 국선변호를 맡았던 사건이 생겼다. 피고인은 여수에 있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그런 일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도 있었다. 사건기록을 검토했을 때 피고인을 접견하고 부모를 만나 피고인의 그 동안의 성장과정을 들고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대학생으로서 공부할 만한 지능이 아니며, 겨우 중학생 수준의 지능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 고등학교까지의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니 지능은 IQ 60~70정도였고, 대부분 과목의 성적이 생겨난 것 같다.

중학생 수준의 대학생이 술한 현실

‘양, 가’이었다. 도저히 대학교육에 대한 수학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부모 말을 듣고 더욱 놀라게 되었다. 피고인이 고등학교까지는 전혀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했으나 대학에 가서 2학년 때는 과대표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생활하였기에 보통학생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였고 의경으로 군대에 가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결국 그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정신지체 등의 사유로 의가사 전역을 시켰고 법원에서는 집행유예선고를 하였다.

이런 어이없는 사건을 변론하면서 필자는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 피고인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능임에도 우리는 그를 대학생으로 만들었고 그의 부모는 잠시나마 대학생 자녀를 둔 즐거움을 누렸다.

그러나 이것은 대학이 필요 이상으로 많고 학생이 부족하여 대학은 학생의 수학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입학시켜 학

생수를 채우는데 급급하고 정부는 이를 대하여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묵인하여 주고 있는 현실에서 초래된 어이없는 회극이며 사기극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학생이 어떻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국민의 교육열이 지나치게 강하여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빛이라도 내어 보내는 것이 우리의 학부형이고 대학은 경영난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기에 급급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문제를 학교와 학부모의 자율에만 맡긴 까닭에 그와 같은 현상이 생겨난 것 같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의 곳곳에서 새로운 요구를 분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법조인일 뿐 교육자가 아니다. 그러나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으로서 현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정의로운, 망망히 추구해야 할 가치에 맞게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대학 다닐 때 어느 노교수의 말이 생각난다. “정의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순간에 약으로 변할 수 있다. 변하지 않는 정의, 그런 정의에 맞는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

전기자전거 운전면허증 없으면 안돼

호남고속철과 무안공항 연결돼야

야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이 후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선정돼 2010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노선이 낙동신도청 등 서남권 광역도시 계획,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와 무안기업도시 건설, 2010년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개최 등으로 2025년에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는 무안국제공항은 대량·신속한 수송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을상기 중 원공개인 무안~광주 고속도로는 광주권과 무안국제공항을 40분대로 연결하게 돼 서해안고속도로와 함께 주요 고속교통망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호남고속철도를 무안국제공항과 연결하고 광주~무안 및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등 주요 지역간 육상교통망을 연계해 나가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서남권 개발의 기반시설로써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도로교통과장〉

취업난 대졸자에 이주여성 한국 적응 교육 맡기자

지난 겨울방학 기간중 농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필자가 속한 팀은 무안으로 가서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우리말 교육을 했다. 농촌에는 이미 필리핀·캄보디아 등에서 시집 온 국제결혼 여성이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 대졸 취업난이 심각하다. 필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자중 영어권, 동남아권, 동북아권으로 나뉘 회화가 가능한 학생들을 선발, 그들에 외국인 여성 농민들의 한글·문화·생활 등 교육을 맡길 것을 제안

한다.

우선 기초단체(여유가 있다면 면 단위)에 종합 교육장을 마련하고 1주일에 3~4일 1년 또는 2년간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주여성들의 한국 적응은 훨씬 빨라질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촌의 국제결혼 가정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내생활 적응이 어렵지 않도록 농촌 결혼이민자 가족 중앙교육원과 같은 교육기관을 하루속히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졸업자들은 이 중앙교육원에서 기본 교육을 수료한 뒤 농촌으로 파견하면 좋을 듯하다.

▲강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시설

교통신호 하나 안지키며 ‘문화수도’라니

고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양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질서 의식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광주 현실은 홍보·계도만으로 교통신호와 주차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광주시내의 교통신호 위반 차량으로 ‘무법천지’가 돼 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외지인들은 광주시내에서 교통신호 등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과속·난폭운전을 일삼는 차량 때문에 운전하기가 무섭다고 토로하고 있다.

광주시내의 교통신호 위반 체포자는 지속적인 단속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지역 교통신호 위반 적발 건수는 2005년 4만7천여건, 2006년 3만7천여건, 지난해 4만8천여건이었다.

하지만, 무인단속기 적발은 제외한 현장단속 건수는 2005년 2천11건, 2006년 2천398건, 지난해 2천615건에 불과하다.

이는 차량등록대수가 큰 차이가 없는 대전과 울산의 15~3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광주가 1천166건으로, 대전 741건, 울산 493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현장 단속 소홀이 교통사

대통령까지 불신하는 한심한 기상예보

기상청의 부정확한 일기예보가 또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일기예보를 틀렸다며 기상예보의 개선을 촉구했다. 기상청은 당장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예보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잘못된 일기예보를 꼬집었다. 대통령은 “슈퍼 컴퓨터가 도입된 이후 예측률이 더 나빠졌다”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상예보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이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잘못된 일기예보를 꼬집었다. 대통령은 “슈퍼 컴퓨터가 도입된 이후 예측률이 더 나빠졌다”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일기예보의 정확도는 실망스런 수준이다. 약 기상 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 정확도는 2006년 21%에 불과했다. 작년 8월 강수량 수치예보모델은 총 1천619mm였지만 실제 강수량은 무려 1천791mm나 많은 3천410mm에 달했다. 기상예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할 것이다.

기상청은 더 이상 장비와 인력 턱만 해서는 안 된다. 슈퍼 컴퓨터를 도입한 뒤 기상 예측률이 더 떨어졌다라는 대통령의 지적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에 기상 예측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기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無等鼓

지난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 이후 미국의 달러화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끌어내리며 세계 중심통화의 자리에 올랐다. 그후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즉 기축통화로서 지난해 중반까지 60년 이상 세계경제에 위세를 과시했다.

지난 90년대 초 소련 붕괴와 직후 경제난을 겪을 당시 러시아의 루블화를 달러화 5천800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러시아 경부는 루블화의 가치를 1천원에 절상하는 화폐개혁을 통해 사태를 수습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달러화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란 같은 나라는 석유를 파는 대금으로 달러화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과거 달러에 물을 당했던 러시아도 경제수치를 작성할 때 달러를 표시하지 말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외환보유액과 달러화의 비중을 사상 최저인 63%로 낮췄고 한국의 외환보유액도 65% 가량만

달러화하고 나머지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중남부 짐바브웨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하늘까지 달고 있다. 자국통화인 짐바브웨달러(Z\$)는 미국 달러당 5천500만Z\$ 수준이다. 실업률은 80%를 웃돌고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만%가 넘게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이 사방간에 생겼다.

물가를 잡는다면 식빵 1개 가격을 500Z\$에 끌어올렸지만 이보다 3만배가 비싼 1천500만Z\$에 팔리고 있다. 교사월급이 5억Z\$고 계란 한판이 1억8천만Z\$이며 5천Z\$짜리 지폐가 갈바닥에 훑굴어 도는 사립이 없다니

29일 대선 심판을 받은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국정과단이 국에 달한 것 같다.

한국과 짐바브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달러화가 유독 한국에서 강세인 것이 께림칙하다. 또 환율, 금리, 물가 등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립하는 것도 문제다.

/기호 경제부장 kihh@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		